“호미는 佛性 일구는 화두와 상통”

‘호미 든 관음성상’ 60주년 기념학술대회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봉화 정토원(원장 선진규)에 봉안돼 있는 ‘호미 든 관음성상’이 조성 6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해 ‘호미 든 관음성상’이 가지는 수행 · 사회 · 문화적 의미를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소장 고영섭)는 3월 30일 동국대 만해관 대강의실에서 ‘호미 든 관음성상 봉안 60주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호미 든 관음성상’은 새불교 · 농민운동 대중결사에 참여한 젊은 불교학도 31명이 1959년 4월 5일 봉안한 것으로 새로운 재가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일이었다.

‘호미 든 관음성상’의 수행적 의미를 조명한 고영섭 동국대 교수는 ‘호미’에 대한 의미를 수행론적으로 해석했다. 중생은 인성이 번뇌로 뒤덮여 불성이 잡초에 가려져 있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호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영섭 교수는 “수좌가 화두를 든 마음과 호미를 든 농부의 육체가 둘이 아닌 것은 화두와 호미가 내면의 번뇌를 끊어내고 잡초를 뽑아내는 기제라는 점에서 같기 때문”이라며 “호미는 선종 형성과 발전의 전환을 이룬 〈선문규식〉과 〈선원청규〉를 상징하며 부처가 될 가능성을 일구는 도구라는 점에서 화두와 상통한다”고 강조했다.

‘호미 든 관음성상’이 갖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도 조명했다. “청년 불교학도들이 일으킨 ‘호미 든 관음성상’의 조성을 위한 청년불사와 대중결사는 우리 사회에 새불교 · 농민운동의 신기원을 열었다”고 강조한 고영섭 교수는 “이들의 결사는 ‘잘 살아보자’는 기치 아래 1970년대 시작된 새마을운동의 시원이자 기폭제가 됐다”고 밝혔다.

호미에 대한 시대적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주장도 제기했다. 고영섭 교수는 “조성 당시 호미는 가난 극복을 위한 생산을 상징했지만 오늘의 호미는 잃어버린 인간성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나아가 모든 중생의 영원한 생명력인 불성의 열매를 캐내는 동체대비의 마음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고영섭 교수는 “노동 생산 자체가 수행이며 궁극 목표는 성불의 증과임을 관음상은 환기시킨다”면서 “관음보살이 호미를 드는 발상의 전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불교가 존재할 이유와 삶의 질적 전환이 왜 필요한지를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1959년 젊은 불교학도 31명이 관음상 조성, 신불교운동 전개
당시 호미는 생산 상징했지만
현 시대인 인간성 회복 의미해
“대승불교 실천정신 되새겨야”

관음상의 사회적 의미를 살핀 장성우 동국대 교수는 〈전륜성왕수행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법의 정치, 약자들에 대한 구제 등은 현재에도 매우 유효함을 상기시키며 “호미 든 관음성상의 시대정신과 대승불교 실천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운동의 측면에서 관음상의 의미를 조명한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새로운 불교문화공간의 재발견 △사찰의 생활문화센터화 △불교문화자산 공유 방안 모색 등을 향후 불교문화 운동 진흥안으로 제시했다.

이재수 교수는 “스마트미디어 시대에 다양한 미디어 기기에 탑재되고 생산되면서 유통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불교계의 문화자산을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창작 과정에서 재창조된 새로운 불교문화의 요성들이 인드라망과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봉화 정토원은 4월 5일 봉화산 정상 호미 든 관음성상 제단서 기념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다.



“글로벌 연등회, 우리가 책임진다”

2019 연등회 글로벌 서포터즈 탄생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한국대표 문화축제로 명성을 높이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 연등회에 관심을 보이는 외국인들이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이들에게 연등회를 바르게 알릴 국제 서포터즈들이 탄생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4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서 ‘2019 연등회 글로벌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 산하법인 문화나눔과 함께 준비한 서포터즈는 4월 6일 진관사 템플스테이 합숙 훈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등회 홍보, 자원봉사 활동을 펼친다.

이번 글로벌 서포터즈는 지난 2월부터 모집, 150여 명이 진원해 평균 2: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류심사와 인터뷰를 거쳐 최종적으로 26개국 60명(한국 20명)을 선발했다. 재참가자는 4명이다.

봉축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참가하는 서포터즈 중 과테말라 출신의 미국인 로렌조 프리아스 (Lorenzo Frias, 21)는 건국대에서 공부하는 의학전공 학생으로 한국문화와 불교에 관심이 많고, 1000시간 이상의 봉사를 했다. 또 다른 서포터즈 벨기에 출신의 지젤 스위튼(Gisele Switten, 30)은 개인적으로 한국불교 공부를 하면서 디지털 마케팅 일을 하고 있다.

글로벌 서포터즈는 앞으로 1개월간 연등회 역사와 예절, 연희 등의 교육을 받는다. 또한 광화문 점등식, 연등행렬, 전통문화마당 플래시몹 등에 참여해 봉축 분위기를 달굴 예정이다. 서포터즈는 개인 소셜미디어에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세계인에게 연등회를 홍보하는 데 주력한다.

윤호섭 기자



글로벌 서포터즈로 선정된 청년들이 활발한 활동을 다짐하고 있다.

행복바라미 캠페인, 지역중심으로 변화한다

중앙신도회 2019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계획 발표

지역 문화축전 중심 전환
508개 전국 모금소 운영
20개 본사 및 400여 사찰
지역주도형 캠페인 발전

불교계 대표 공익캠페인인 행복바라미가 지역 중심으로 전환된다. 불교계 장기 캠페인으로 정착하기 위한 변화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는 4월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행복바라미 캠페인의 서울을 비롯한 전국 문화대축전 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서울지역 문화대축전 행사는 4월 14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다. 서울 문화대축전에서는 행복바라미 알림식과 함께 범패와 나비춤 등 문화재 공연, 대중문화공연 등이 진행된다. 보고 즐기는 전통문화 전시, 전통문화체험, 시민과 함께하는 공연의 세 가지 테마로 캐릭터 조형등과 전통놀이 체험존 등을 설치해 시민 참여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행복바라미 조형등은 4월 3일 사전 설치를 시작으로 4월 14일 오후 8시까지 청계광장 일대에서 볼 수 있다. 또 4월 14일 오전 11시부터 대형 칠보놀이, 투호던지기, 윷점치기 등 전통놀이체험존이, 연꽃만들기와 연화다실, 가훈쓰기 등도 청계광장 일대에서 펼쳐진다.

이와 함께 각 지역 축제도 더욱 확장된다. 2018년의 경우 전국 10개 주요도시에서 열린 지역 문화대축전이 인천, 남양주, 수원, 공주, 광주, 강릉, 대구 등 총 21개 지역에서 열린다.

지역 문화대축전에 참여하는 불교계 단체와 사찰도 늘어난다. 지난해 9개 교구본사가 동참했지만 올해는 법주사, 월정사, 화엄사, 통도사 등 총 20개 교구본사가 참여한다. 이와 함께 사찰측의 적극적인 통함으로 전국 508개 모금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행복바라미 거리모금에 동참하는 불자들의 모습.

이기흥 중앙신도회장은 “7년차를 맞은 행복바라미 캠페인은 현재 매년 모금액이 늘고, 정부인증을 받는 등 성장세에 있다”며 “캠페인의 지역 확산과 장기적인 운영을 위해 올해부터 각 지역의 사찰을 비롯한 단체들이 주도하는 문화축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기흥 회장은 사찰 측의 동참을 위해 3월 11일부터 26일까지 전국교구본사를 비롯한 40개 사찰을 방문해 캠페인 취지 등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어 “불자들이 연중 한차례라도 소외계층을 돌보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행복바라미”라며 “불교계가 사회 공공선 실천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전국 사찰 보살계수계산림 잇달아

통도사 4월 9~11일 · 범어사 4월 18~19일

전국사찰에서 대중들의 계율 수지를 위한 보살계가 펼쳐진다. 통도사(주지 영배)는 4월 9~11일 설법전과 금강계단에서 보살계 수계산림 법회를 열고 계의 중요성을 강조, 불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독려한다. 수계 산림은 3일 동안 입재식과 산림법석, 연비, 사리탑 참배, 탑돌이 등으로 진행된다. 통도사는 30 · 20 · 25 · 10회 등 보살계를 받은 수계자들에게 기념 메달, 금색가사 그리고 성만패를 전달, 격려할 예정이며 학인 스님에게 장학금도 수여한다.

주지 영배 스님은 “통도사는 개산조 자장율사께서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금란가사를 봉안하고 금강계단을 쌓아 계를 설한 계율 근본도량이다”며 “자장율사의 계율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보살계 수계산림 법회를 봉행하니 두루 동참하시기 바란다”고 참여를 독려했다. (055)381-1288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도 보살계를 개최한다. 범어사(주지 경선)는 4월 18~19일 금강계단 보제루에서 제119회 보살계수계산림을 봉행한다.

입재식은 4월 18일 오전 10시이며 회향식은 19일 오전 10시에 봉행된다. 수계산림은 천수다라니, 노사나불정근, 전계대화상 법문, 참선정진, 보살계법문, 수계식 및 계첩수여 등으로 진행된다.

범어사는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에 ‘나 없는 세상에 너희가 의지해야 할 곳은 오직 자신의 본성과 나의 가르침인 계(戒)뿐이다. 그러니 계를 스승으로 삼으라’ 셨다”며 “계를 지키는 사람은 어두운 곳에서 밝은 빛을 만난 것과 같고,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음과 같으니 계를 통해 보살도를 이루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참 희망자는 범어사 원주실로 신청하면 된다. (051)508-3636

하동 쌍계사(주지 원정)도 4월 9일 입재식을 갖고 11일 오전 8시 대장경 정대불사를 끝으로 보살계 대법회를 회향한다. (055)883-1901

하성미 기자

행사문의 _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 T. 02-733-7277 F. 02-733-7278 www.everygoodday.org



4/14 _ (13시 ~) 권원태 연희단 줄타기, 풍물놀이, 전통무용, 퓨전국악 등 전통 문화 공연 및 다양한 체험행사
(16시 ~)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개막행사
└ 축하공연 : 국악계 아이돌〈남상일〉 전국노래자랑 스타〈지병수 할아버지〉 세종우리문화예술연구회 국악밴드, 포천시립민속예술단

4/13~27_ 나눔문화 캠페인

4/7~7/19_ 지역문화제 (전국 주요 20여 곳)

4 / 7(일)	5교구 법주사	5 / 5(일)	9교구 동화사
4/20(토)	4교구 월정사	5 / 5(일)	11교구 불국사
4/27(토)	19교구 화엄사	5 / 7(화)	22교구 대흥사
4/27(토)	23교구 관음사	5/11(토)	12교구 해인사
4/28(일)	15교구 통도사	5/11(토)	14교구 범어사
5 / 1(수)	6교구 마곡사	5/12(일)	18교구 백양사
5 / 3(금)	17교구 금산사	5/12(일)	10교구 은해사
5 / 4(토)	2교구 용주사	5/25(토)	24교구 선운사
5 / 4(토)	21교구 송광사	6 / 8(토)	8교구 직지사
5 / 5(일)	3교구 신흥사	7/19(금)	25교구 봉선사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주관	(사)날마다 좋은날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후원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한국관광공사